

작지만 강한 학교

〈5〉 전남 체육중·고

2006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전국 15개 체육고등학교 가운데 육상부문 종합 1위! 종합 5위! 지난 2000년에 개교한 전남체육중·고등학교가 7년이란 짧은 기간에 거둔 성과다. 체육고는 지난 2003년에 인가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년 만에 전국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기초체육 과학화’...육상 명문으로

전남체육중·고등학교가 이처할 단기간에 명문고로 발돋움 한데는 지난 2004년 9월 최송진(56)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다.

지난 2000년 전남체육중학교로 개교한 전남체육중·고등학교는 전국 15개 체육고등학교 중 가장 역사가 짧아 전국체육대회에서 15개 체육고 중 10위권 이하의 하위권에 머무는 눈에 띄지 않는 학교였다.

최 교장은 이러한 학교분위기 쇠신을 위해 ‘기초체육의 과학화’를 주도했다. 전남체육중·고에 부임하기 전 설(舌)암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치 못한 몸이었지만 육상을 전공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남 체육영재 육성을 미룰 수는 없었다.

우선 매년 전국체육대회 등 그해 교육활동을 자체 분석하고 ‘훈련계획-훈련실천-훈련분석-평가-반성’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간, 교사들과 함께 대화하고 고민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교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학생 지도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고안하고 적용하게 됐다.

선수수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수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9실을 지어 도내 초·중등 우수선수를 위탁받아 숙식을 제공하며 무료로 지도했다. 우수선수 위탁지도는 선수들이 체육중·고의 우수성을 맛보게 돼 자발적으로 체육중·고에 진학, 우수선수 영입에 큰 역할을 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전국 체육고 중 최초로 길이 150m, 폭 8m의 전천후 연습장과 투척 보조경기장, 체력센터 측정실 등을 갖추는 등 최신 시설에 투자, 최적의 운동환경을 조성했다.

문봉기 육상부 감독은 “전천후 경기장은 전국 15개 체육고 중 유일한 시설로 눈·비는 물론이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할 수 있다”며 “운동환경은 15개 체육고 중 최상급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4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전국 15개 체육고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전천후 훈련장에서 전남체육중·고 육상부 학생들이 훈련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무 겸비한 체육 엘리트 배출 산실

전국 최초 전천후 연습장 조성

독서 생활화 등 수업·체육 병행 성과

체육고 중 11위, 2005년 9위, 2006년 금 11개·은 11개·동 13개로 총 3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는 성과로 나타나 전남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올 해로 2회째 배출되는 졸업생들도 100%에 가까운 진학·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2005년 1회 졸업생 중 한국체대 7명·광주교대 2명·부산대 1명·조선대 7명·호남대 4명·순천대 2명·동신대 5명 등 61명 중 57명이 진학·취업했다.

2006년에는 4년제 대학 진학 43명, 전문대학 9명, 실업팀에 9명이 취업하는 등 100% 진학·취업을 달성했다. 또한 육상 수영·유도·체조·태권도·근대 4종 등에 21명의 국가대표 상비군과 레슬링,

인라인에 주니어 대표 2명, 복싱과 육상 꿈나무 8명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인 이미영을 비롯한 5명은 실업팀인 해남군청에 높은 연봉을 보장받고 취업해 후배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체육중·고는 육상·태권도·양궁·체조·수영·복싱·역도·사격·레슬링·인라인·근대 4종 등 11개 종목 15개 부서를 육성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같이 7차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을 오전수업을 통해 이수하고, 오후에는 각 부서별로 전문실기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체육중·고는 정규 수업은 물론이고, 매일 책 5권을 읽고 독후감 쓰기, 자체 제작한 생활영어와 상용한자 쓰기 교재를 통해 기초학력을 다져 문무를 겸비한 참다운 체육엘리트 인을 배출하고 있다.

최송진 교장은 “전남체육중·고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와 폭넓은 체력학습,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학습으로 학생의 능력과 잠재적 소질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운동선수라고 수업 소홀해선 안된다”

■ 최송진 교장

“전남 체육영재의 산실로서 전남체육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에 부임한 최송진(56)교장은 조선대학교 육상부 출신으로 경기인 출신.

최 교장은 전남체육중·고에 부임한 후 ‘경기력 향상방안’이라는 논문을 발간해 실력있는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과학적 훈련을 체계화 했다. 또 전국 15개 체고 중 유일한 전천후 훈련장을 갖췄고,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 도서관 전산화, 독서 생활화를 추진해 학생들의 실력향양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여대 학교기업형 사업단 설립

22개 학과 참여...3년간 1~3억 지원
수익금 재투자해 자생력 키우기로

광주여대(총장 오장원·사진)가 2007학년도부터 유·사 학과 컨소시엄을 통한 학교기업형 사업단을 설립, 운영키로 해 지역 대학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단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을 관련 학과 학생 장학금 지급·해외연수·최첨단 실험실습 환경 조성 등에 사용해 각 학과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대학 몇몇 학과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대학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한 학교기업형 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고 광주여대를 설명했다.

광주여대는 7일 2007학년도부터 여성의 역량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위해 ‘자립형 학과별 1특성화 및 학교기업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기업화 사업에는 22개 학과가 모두 참여하며, 선정된 사업단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3년간 모두 1억~3억원이 지원된다.

또 매년 수익금·지역사회기여도·신입생유치효과 등을 평가해 사업 중단 및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여대는 현재 작업 치료학과·실버케어학과·치료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대체요법학과·언어치료학과·사회복지학과 등 7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센터’, 유아교육과·어린언어교육과·아동미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된 ‘유아문화예술교육단’, 미용과학과가 주축이 된 ‘기능성 화장품 개발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무용학과와 ‘광주여대예술단’, 간호학과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단’, 콤팩트케미컬학과와 ‘컬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식품영양학과와 ‘바이오프로덕트연구소’등도 사업단 구성을 준비 중이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국내 최고의 여자대학교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적인 대학 여건 분석과 여성 특유의 감수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성화사업단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방대학 특성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대광여고 ‘한빛 축전’

광주 대광여고는 6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교생 1천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 축제인 ‘제18회 한빛축전’을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계발활동을 통해 배운 합창·연극·시낭송·그룹댄스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대광여고 제공)

“쌍촌고” vs “상일고” 신설고 교명 주민들간 논란

“쌍촌동에 있기 때문에 쌍촌고로 해야한다”

“육설 느낌을 주는 쌍촌고 보다는 인근 중학교 이름과 같이 상일고로 해야한다”

오는 2008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일중 인근에 들어서는 고등학교 명칭을 놓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00년초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에 앞서 쌍촌(雙村)동에 거주했던 지역 원로 등 일부 주민들은

동(洞) 이름을 감안해 쌍촌고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인근 상일(尙一)중 교명처럼 상일고로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쌍촌동이 지역구인 광주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쌍촌동에 30~4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이 쌍촌고를 선호하고 있다”며 “교명을 쌍촌고로 해달라는 120여명의 진정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들이 상일중 2학년이 재학중인 학부모 정모(여·40)씨 등은 “쌍촌고란 어감이 어찌저 촌스럽고 불쾌감을 준다”며 “상일중 학교 옆에 위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상일고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08년 3월 개교에 앞서 명칭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Advertisement for '한우삼형제' (Hanwoo Samhyungje) featuring a large building and text about beef products. The text includes '명품 한우 전문점' and '삼형제가 직접 기른 한우삼형제'.

Advertisement for Sony Real Full HD TV, showing various TV models and their features. The text includes 'SONY 소니 프리미엄 Real Full HD TV 출시!!' and '최고 화질, 최첨단 소니 기술'.